

종합

# 민주통합당 당권 출마 러시

### 한명숙·박지원·이학영·문성근·김기식·김부겸·이인영·신기남 도전장

다음달 15일 통합정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당권 주자들의 키워드 경쟁도 불이 붙고 있다.

19일 현재 당권 도전 선언한 후보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이학영 진보통합시민사회 상임의장,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김태량 전 의원,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김부겸 의원, 이인영 전 최고위원, 신기남

전 의원, 김기식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등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당권 도전을 선언할 계획이다.

이 같이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데 당권 주자들은 자신의 키워드를 내세우며 다른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에서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열겠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키워드는 ‘준비된 후보’다. 당 대변인과 18대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원내대표를 역임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대외 투쟁의 선봉에 서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의원은 ‘가치혁신·세대혁신·정치혁신’을 전면에 내걸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경제민주화, 지도부의 세대교체, 지역주의를 넘어선 전국 정당화를 제시했다.

신기남 전 의원의 ‘혁신과 화합’을 내세우며 인적쇄신 대상으로 박 원내대표를 지목했다. 486 주자 간 대결도 불 만하다. 486 주자 가운데는

젊은 정당, 젊은 대표’를 키워드 한 이인영 전 최고위원과 ‘기존의 486도 기록이나 됐다’는 우제창 의원이 출마한다.

시민통합당 출신의 당권주자들은 ‘시민’을 전면에 내걸었다.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정당의 주인은 시민’을,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공동대표는 ‘시민정치와 혁신’을, YMCA의 대부로 통하는 이학영 진보통합시민회 상임의장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정치개혁, 정당혁신’을 각각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의 박용진 전 시민통합당 지도위원은 “진보의 가치로 시민통합당의 역동성을 대표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최규성 의원 임명

민주통합당은 19일 사무총장에 재선의 최규성 의원을, 공동대변인에 김유정 의원과 오종식 전 혁신과 통합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대외협력 및 시민참여, 청년 비례대표 선출 등 신규 사업을 담당하는 제2사무총장에는 김두수 국민의 명령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원혜영 공동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영록 의원, 이용선 공동대표 비서실장에는 김진국 부천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를 인선했다.

민주통합당은 내달 15일 대표·최고위원 경선 관리 업무를 맡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양준승 사회투자포럼 상임이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민주통합당 원혜영 공동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관련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만 보고 가겠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 출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비대위’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당 운영을 책임지며 재창당을 뛰어넘는 해신을 주도하게 될에 따라 정책을 포함한 당 노선과 당·정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파문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여론 인사 연루설, 검찰의

친박(친박근혜) 측근 조사 등 각종 악재가 터져나오면서 박 전 대표의 앞날에는 난제가 쌓여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민심이반에 따른 당의 인기도 하락으로 비대위원 인선 작업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제14차 전국 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및 ‘대선 출마자 대선 1년6개월 전 당직 사퇴’ 예외규정에 관한 당헌 개정을 의결하고 박 전 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

장으로 임명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참석 전국위원 527명에 의해 만장일치로 선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아픈 곳을 보지 못하고 삶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신을 위해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이란 대의에 공감하는 사람이면 누구와도 함께하려 한다”

며 ‘외연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비대위 구성과 관련 “기득권을 배제하고 국민 편에서 생각하겠다. 우리 사회의 상식을 대변하는 분들, 진정성을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분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 오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국민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총선 예비후보 등록 쇄도

### 광주·전남 일주일만에 48명 경쟁률 2.4대1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광주·전남 정치인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전남선관위에 따르면 19일 현재 광주 8개, 전남 12개 지구에 48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 2.4대1을 기록 중이다. 광주는 8개 선거구에 21명이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전남은 12개 선거구에 27명이 등록해 2.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광주에서는 북강 선거구가 전남에서는 장흥·강진·영암 선거구와 해남·완도·진도 선거구가 각각 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시민통합당 3명 포함)이 3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아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무소속 9명, 통합진보당 5명, 한나라당 2명 순이다. 광주 서구 갑에 송갑석(45·민) 예비후보가, 광산 을에는 장연주

(43·진)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쳐 이날 현재까지 현역 의원과 1대1 구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 동구에서는 양형일(61·민), 박동수(46·무) 예비후보가, 광산 갑에 이정남(55·민), 전갑길(54·민) 예비후보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 또 서구 을은 오병운(54·진), 이상갑(44·민), 정남준(55·무) 예비후보가, 남구에는 김명진(48·민), 강도석(57·무), 노덕린(한·56) 등 3명이 등록했다. 북구 을엔 임내현(59·민), 최경주(51·민), 최경환(52·민), 윤민호(41·진) 등 4명이 등록했으며, 북구 갑에는 김경진(45·민), 이형석(50·민), 이채인(61·진), 임현모(55·민), 박규환(52·민) 등 5명이 등록해 광주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지역은 여수 갑에 이광진(46·민) 예비후보 1명이 등록했고, 순천은 노관규(51·민), 김선동

(44·진) 등 2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양은 신홍섭(53·민), 김광영(74·무), 김현욱(67·무) 예비후보가, 무안·신안에는 백재욱(47·민), 서삼석(52·민), 주태문(47·민) 등 3명이 등록했다.

담양·곡성·구례는 고현석(69·민), 국창근(73·민), 김재두(44·민), 이계호(52·민) 후보가, 고흥·보성은 장성민(48·민), 장호호(52·민), 김철근(43·민), 김법태(57·민) 등 각각 4명이 각각 등록을 마쳤다.

장흥·강진·영암엔 국영애(51·민), 김영근(52·민), 김성일(48·무), 유인화(72·무), 황주홍(60·무) 예비후보가, 해남·완도·진도엔 조강현(51·한), 민병록(58·민), 박광은(55·민), 양동주(67·민), 윤재갑(57·무) 등 5명이 등록해 전남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 이상득의원실 직원계좌서 10억 발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전 보좌관 박배수(46·구속)씨가 받은 뇌물의 돈세탁에 관여한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출처 불명의 거액이 발견돼 검찰이 자금 성격과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박씨 주변인물의 계좌를 추적하던 중 임모씨 등 의원실 여직원 2명의 계좌에서 지난 2년간 출처가 의심스러운 현금 10억원 간담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이 중 2억원 정도는 박씨가 이국철(49·구속) SLS그룹 회장

과 유동천(71·구속)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받은 로비자금으로 파악하고 나머지 자금의 출처를 추적 중이다.

박씨는 SLS그룹 워크아웃을 무마한다는 로비 명목으로 이 회장에게서 현금 6억원과 미화 9만달러, 고급 손목시계 4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 회장으로부터는 제일저축은행 영업점지 무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검찰에서 2억원만 원의 실 직원 계좌를 통해 돈세탁했을 뿐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檢 “김선동 의원 출석 않으면 재소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 중이던 국회에서 최후반을 떠뜨린 혐의(국회회의장 소동죄)로 고발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을 수사중인 검찰은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의원에게 오늘 오후 2시에 출석하도록 요구했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김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일정을 잡아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김 의원 측에 이날 출석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보냈으나 김 의원은 거듭 불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 김철주 무안군수 출마

### 도교육청 비서실장 사의

전남도 교육청 김철주(55) 비서실장이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비서실장은 내년 4월 고흥인 무안에서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취임한 김 실장은 폭넓은 대인관계 등을 장점으로 의뢰,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원만한 소통관계가 이끌어왔다. 특히 교육위원과 도의원 등 3선 의원의 관

목을 살려 열악한 지역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철 실장은 “전남교육 발전을 위해 쏟은 열정을 이제 지역민과 지역인들을 위해 쏟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

##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제학		3학년입학 / 2년제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2월 19일

**아이에리시아**  
특허청 서비스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 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용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에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